

“어르신들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습니다”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병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5%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현재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 절실하다. 이에 발 맞춰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특성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있어 찾아가 봤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북부노인병원

지난 5월 15일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서울시가 세운 최초의 노인병원으로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이 병원은 노인성 질환의 의료 질 향상을 추구하고며 선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병원으로서 그 표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홍보담당 주영래 주임은 “우리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서울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만 65세 이상 급성기 치료를 마친 뇌졸중,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치매 또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재활치료와 건강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환자의 상태는 보통 급성기(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한 단계)→아급성기(급한 치료는 마쳤지만 의료진의 보호가 필요한 단계)→만성기(장기요양이 필요한 단계)로 분류하는 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은 급성기 수술을 담당하며 노인병원은 아급성기 환자를 주로 치료한다. 북부노인병원에서도 급성기 수술을 받고 곧바로 사회 복귀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2~3개월 간 재활 치료와 건강교육, 영양상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북부노인병원은 서울 시내에 자리해 있지만, 주변의 산과 친자연환경적인 내부구조로 아름다운 경관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칭찬하는 명품 시립병원

당신은 노인병원이라 하면 진료대상이 노인에 국한되며, 의료수준도 기대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설도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 의심하지는 않는다. 기자가 찾은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은 연면적 5,452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00병상을 갖추고 있었고, 최신식 재활 의료시설이 곳곳에 있어 전문 재활치료사들과 1:1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등 주요 노인성 질환 진료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 안과, 치과, 외과, 마취통증학과 등의 외래진료와 종합건강검진은 나이에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 인근주민의 의료 욕구에도 부응하고 있었다. 북부노인병원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의료진 역시 최고를 자랑하며 서울시 산하 병원, 인근 요양기관 등과 연계해 종합·대학병원과의 협력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어 민간병원에 비해 수준이 떨어져 보일 것이라는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벗고 ‘명품노인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의 쾌적한 시설과 맞춤형 진료 서비스, 선진 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베트남 등 해외에서의 방문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고급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노인병원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이니 만큼 치료비는 저렴하다. 이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가 40만원~50만원 정도 되며, 간병비가 75만원으로 한 달 치료비가 120여만원이 된다. 보통 노인병원에서는 간병비가 많이 부담이 되지만 이곳은 간병인 한 명이 환자 두 명을 돌보는 ‘공동 간병인’ 제를 실시하여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병원 신영민 원장은 “이 정도의 비용으로 기대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병원이기 때문에 한번 입원 한 환자분들은 좀처럼 퇴원을 하려 하지 않아 병원 측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퇴원 기간을 3개월, 한 환자가 두 번까지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낮아 질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노인성질환으로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사정상 혹은 환자의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회복준비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 북부노인병원에서는 이런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보다 빠른 회복을 위해 특성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병원을 찾아서

치료 및 영양, 건강교육, 영양상담 등 사회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이행하여 건강하게 가정으로 귀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신재활의료 시설들은 물론이고 노인질환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전문 재활치료사 수만 17명으로 어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규모를 능가하는 인력을 두고 있다. 또한 보다 빠른 회복을 위한 특성화된 재활치료(작업치료, 언어치료, 열/전기치료, 운동요법, 오락요법, 음악요법, 미술요법, 웃음요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신원장은 “어떤 병이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즐겁게 웃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재활 치료 참여를 강조했다.

특별한 서비스, 호스피스·가정간호

북부노인병원에서는 환자의 신체적인 건강회복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의 심적인 고통까지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병원은 아급성 환자 대상의 병원으로써 여러 대규모 병원들과 협진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암센터 등을 통해서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들이 통증 및 증상을 완화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이곳 호스피스 실을 이용하고 있다. 10개 병상규모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전문의료진들에 의해 환자의 심리와 정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 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미용 봉사, 마사지봉사, 웃음치료 봉사, 미술·음악치료 봉사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모임과 가족교육을 지원하여 임종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돕는다. 또한 입원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하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은 물론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병원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의료기관에서는 교육과 건강검진, 건강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병원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사회, 나아가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매달 공개강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었다. 이 병원은 노인병원이지만 외래진료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물론 세대별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학생검진, 일반인 종합검진, 직장인 공단 검진 등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무료건강강좌, 건강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원장은 “우리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노인성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매달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직접 찾아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에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진들이 노인대학, 경로당, 각종 종교단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보다 앞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 직원, 노인 전문가 되라!



북부노인병원 신영민원장

으로 꾸준한 당뇨관리가 중요하며, 환자분들 또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다”며 철저한 자기 관리를 당부했다.

노인병원은 다른 어떤 병원보다도 더 많은 간호와 재활치료 등의 보살핌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 및 직원들의 교육도 남달라야 하는데 실제로 북부노인병원에서도 내원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장은 “노인병원 특성상 주요 내원객이 어르신들인 만큼 직원들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병원에서는 한 달에 2~3번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직원들에게 노인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병원 내의 교육 뿐 아니라 외부의 노인관련학회나 세미나 등의 지속적인 참가를 독려하여 직원 개인의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당뇨는 중풍, 치매 등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에 노출 정도가 크고, 실제로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약물요법과 식이요법

글 / 광정은 기자